



미얀마

Myanmar(Union of Myanmar)

4월 30일·5월 1일·아시아

지리

면적 676,577km². 인도, 중국, 태국 사이에 위치한다. 말발굽 모양의 높은 산에 둘러싸여 있는 이라와디 강의 삼각주 분지다.

	인구 수(명)	연성장률(%)	인구밀도(명/km ²)
2010	50,495,672	0.87	75
2020	55,496,711	0.89	82
2030	59,352,944	0.61	88

수도 네피도 1,024,062명. 기타 주요 도시 양곤 4,300,000명, 만달레이 1,000,000명. 도시화 33.9%. 15세 이하 인구 27%. 평균수명 61.2세.

종족

인종학적으로 매우 다양하다. 공식적으로 8개 주요 종족이 있고 135개 소수 종족과 부족이 있다. 더 작은 부족과 언어 집단도 있다. 공식적인 수치는 소수 종족의 규모를 어림잡은 것이고 1931년 이래로 믿을 만한 인구통계 수치가 없다.

티베트-히말라야족 78.7%.

버마(바마)족 62.8%. 버마족 55.8%, 라킨족 7.2%, 기타 4

개 종족.

카렌족 9.4%. 스가우족을 포함한 24개 종족 3.6%, 동부 쾰족 2.2%, 흑 카렌족 1.6%.

쿠카친족 2.5%, 39개 종족, 친족(19) 1.8%.

미라카친족 2.4%, 카친족 1.9%.

동남아시아인 14.8%. 샨족 8.5%, 몬-크메르족(14) 4.5%, 팔라우족(4) 1.4%.

남아시아인 4.2%. 로힝야족 1.9%.

기타 2.3%. 중국인(4) 2.0%.

문자해독률 89.7%. 공용어 버마어. 전체 언어 116. 성경이 번역된 언어 전 26, 신 15, 부 24. 다른 135개 언어와 방언은 성경이 없다.

경제

티크 숲과 비옥한 농경지, 보석과 광물, 해양의 석유와 가스 등 자원이 풍부하지만 국민은 대부분 가난하거나 최저 생활수준이다. 군사정부의 약탈과 파괴로 아시아의 곡창으로 불리던 미얀마는 3분의 2 이상의 아이들이 영양실조에 걸리고 대부분 1인당 하루 평균 1달러도 안 되는 생활비로 살아가는 형편이 되었다. 불법 약물인 암페타민이 아편을 대체했다. 물가상승, 정치적 고립과 더불어 2008년에 사이클론 나르기스로 피해를 입으면서 이미 빈곤한 국민이 받는 압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인간개발지수 182개국 중 138. 공채 GDP의 4.5%. 1인당 소득 446달러(미국의 1%).

정치

인도에 속해 있다가 영국에게 지배당하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일본이 점령했다. 1948년 독립했으나, 중앙 정부에서 약속한 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종족 지역에서 무장 분리 운동을 일으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1988-1989년에는 25년간의 군사 독재정권에 대한 민중 봉기가 있었다. 1990년 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했지만 군부는 야당 지도자인 아웅산 수지 여사를 감금하고 선거 결과를 묵살했다. 아웅산 수지 여사는 대부분의 생을 억류된 채 보냈다. 비밀 군사정부인 국

가 평화 발전 위원회(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는 반대파를 투옥하고 강제 노동과 집단학살을 일삼았으며 소수 집단을 억압하고 모든 반대 의견을 억눌렀다. 2007년에 일어난 저항을 강력 탄압하고 수도를 네피도로 이전한 일로 국민은 군사정부에서 더 멀어졌다. ASEAN 회원국이며, 2008년 부정 선거로 군사정권의 새 헌법이 작성되었다. 2010년에 총선이 있었다.

종교

정권은 미얀마에서 불교가 갖는 특별한 위치를 인정한다. 최소한 헌법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존재한다. 몇몇 소수 종족 안에서는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왕성하다. 민족적·정치적·종교적 차이로 폭력적인 대립이 뒤따른다는 것은 일부 기독교 소수자가 군부에게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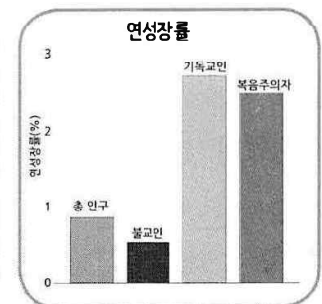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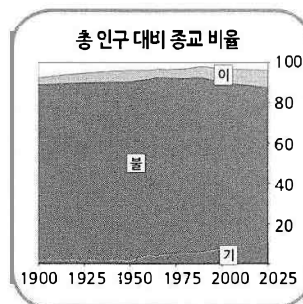
종교	인구 비율(%)	신자 수(명)	연성장률(%)
불교	80.04	40,416,736	0.6
기독교	8.98	4,534,511	2.7
이슬람교	7.20	3,635,688	2.0
동양종교	2.30	1,161,400	2.7
종족종교	0.63	318,123	-1.2
힌두교	0.45	227,231	0.0
무종교	0.40	201,983	0.9

소수 종교의 수치는 정부가 주장하는 수치보다 많다.

기독교	교단(개)	인구 비율(%)	최대교인수(명)	연성장률(%)
개신교	32	4.52	2,285,000	1.6
독립교회	55	2.29	1,156,000	4.6
성공회	1	0.13	64,000	0.6
가톨릭	1	1.33	672,000	2.2
유사기독교	1	0.03	13,000	3.8
미등록		0.68	343,000	5.5

교단	종파	교회(개)	교인수(명)	최대교인수(명)
미얀마침례교총회	신	4,530	1,142,000	1,720,000
가톨릭	가	334	417,391	672,000
리수기독교회	독	967	58,000	145,000
그리스도의교회	신	1,769	92,000	138,000
하나님의성회	신	1,251	43,634	100,358
미얀마복음전도교회	독	500	37,500	75,000
미얀마지역교회	성	132	31,323	63,899
신자교회	독	600	30,000	60,000
복음주의신자집회	독	357	20,000	44,000
복음주의침례교	독	243	17,000	37,740
마라기독교회	신	92	18,500	37,000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	227	27,231	35,400
미얀마장로교	신	246	17,448	29,791
기타[77]		5,506	535,551	1,031,091
계[90]		16,754	2,487,578	4,189,279

초교파집단	인구비율(%)	신자수(명)	연성장률(%)
복음주의			
복음주의	5.0	2,517,184	2.5
갱신주의			
은사주의	1.4	724,391	3.8
오순절주의	0.5	267,766	3.6



기도 응답

- 1** 기도의 응답으로 큰 고통과 탄압 속에서도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 여전히 많은 기독교인이 소수 종족에서 나오고 있지만, 불교 신자, 특히 승려들 사이에서 복음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복음 전도에 탄력이 붙고 토착 선교단체 운동이 번성하고 있다.
- 2** 기도 운동과 신자 간 연합은 과거 파벌주의와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다. 기도한 결과,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가 나타나 교단과 종족의 경계를 넘어 사역하고 있다. 또한 성장하고 더 연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 3** 핍박과 가난, 고립이라는 절망 가운데서도 교회를 정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자유주의 모임이 성경적인 진리에 더 가까워지고, 해이한 신자들도 역동적인 믿음의 삶으로 인도되고 있다. 미얀마 교회는 고통스럽고 한탄할 만한 상황인데도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

기도 제목

- 1** 군사정권은 무자비함이 극에 달하고 있다. 그들의 자기 위주 정책은 부유하던 나라를 빈곤한 고립지로 만들어 국제적인 따돌림을 초래했다. 매우 영적인 이 나라에서 2007년 불교 승려들이 이끄는 시위를 강력하게 탄압한 일은 권력을 통제하려는 자와 도덕적 권위를 지키려는 자 사이를 더욱 벌려놓았다. 민중이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게 된 시점부터 정권에 대한 환멸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얀마의 군사 행동에 대한 UN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았으며, ASEAN의 영향은 미미하다. 외부 개입이 정의를 가져오도록 기도하자. 또한 권력을 악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회개하도록 기도하자.
- 2** 특정 소수자에 대한 체계적인 폭력 정책은 마을 파괴, 강간, 고문, 인구 추방으로 나타나고, 이 때문에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카렌족, 친족, 산족, 몬족, 와족과 같은 종족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특히 카렌족과 친족은 그들의 기독교 신앙 때문에 분리주의자 의용군에게 색출당하기도 했다. 미얀마는 정치적·교회학적, 특히 인종적 수준에서 심하게 균열된 나라다. 불가능해 보이는 인종 화합과 효과적인 연방제, 평화를 위해 기도하자.
- 3** 다음 상황 때문에 버마족의 고통과 가난이 심해지고 있다.
 - 1) 사이클론 나르기스에 의한 대대적인 파괴. 2008년 5월 나르기스가 나라를 휩쓸고 지나갔을 때, 14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질병과 궁핍이 뒤따랐다. 피해액이 약 100억 달러에 달한다. 이러한 파괴는 정부의 느장 대응과, 외국의 구호단체가 피해 지역에 들어와 구조하려는 것을 정권이 거절하면서 악화되었다. 또한 최상품 원조물자를 군대로 빼돌리는 등의 부패 때문에 더 악화되었다.
 - 2) 급락하는 경제. 통화는 평가 절하되고, 음식과 연료 가격은 급상승하며, 사람들은 남는 것 없이 하루 벌 어 하루 먹으며 살아간다. 그중 10%가 만성적인 영양실조 상태다. 이는 주로 정부의 부패와 잘못된 관리 때문이다. 이런 불안정한 현실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 나약해지고 있다.
- 4** 군사정권은 기독교("C 바이러스"[C-virus]라고 부른다)를 제거하려고 애쓰지만, 복음은 계속 퍼져 나가고 있다. 기독교인은 보통 권력이나 영향력 있는 자리와 거리가 멀다. 기독교 소수자에 대적하는 군사 활동은 공개적이며, 지난 10년간 3,000개가 넘는 기독교 마을이 불에 탔다. 교회는 등록 허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인식되어 괴롭힘의 대상이 된다. 1966년 외국인 기독교 사역자가 추방되면서 신생 교회는 성숙한 지도자나 기반시설이 거의 없는 채로 남겨졌다. 그러나 고난과 박해, 고립은 오히려 굴하지 않고 견뎌내는 믿음을 형성시켰다.

5 미얀마 교회는 많은 도전을 직면하고 있다. 다음 문제를 위해 기도하자.

- 1) 많은 제약 때문에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 권력기관은 주로 새로운 교회 건물 건축을 허락하지 않는다. 기독교 문서 수입도 엄격히 제한된다. 많은 경우 기독교인은 억압 받거나 불교로 전향하도록 강요 받는다.
- 2) 명목주의와 부흥은 동시 역학 관계에 있다. 아도니람 저드슨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기독교를 전한 후 몇 세대가 지나자 기독교는 살아 있는 신앙이라기보다 그와는 무관한 전통이 되었다. 어떤 면에서 서구 인본주의는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켰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주류 교단과 전통 교단은 부흥과 회복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부흥과 회복은 이미 확고히 자리 잡은 기존 교단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
- 3) 기독교인은 대부분 소수 종족 출신이며, 중앙 정부에 대항하는 군사 행동에 연루되어 있다. 이것이 쓴 뿌리, 다른 종족에 대한 증오, 신앙의 타협, 선교 비전의 상실이라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기도하자. 고립과 궁핍, 훈련 부족은 이 집단이 믿음의 증인이 되는 것을 방해하지만 한편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 4) 기독교인 간의 화해와 연합이 절실하다. 민족, 정치, 소극적 저항주의나 군사적 행동주의, 교리 등 분열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지도자 한 사람이 강력하게 집중 제어하는 권위주의적 교회/교단 형태는 교구제와 함께 기독교인을 분열시키고 성장을 가로막는다. 다음을 위해 기도하자.

i 영적 연합의 힘. 급증하는 기도 운동과 갱신에 영향을 받은 이들과 신흥 지도자 세대가 하나로 연합하도록 기도하자.

ii 조직 단체의 유대감 조성. 미얀마 교회 협의회(Myanmar Council of Churches, MCC), 미얀마 복음주의 기독교 연합(Myanmar Evangelical Christian Fellowship, MECF), 미얀마 성서 기독교 연합(Myanmar Biblical Christian Fellowship, MBCF)이 기독교인의 연합을 효과적으로 촉진하도록 기도하자.

iii 문화적 지도력 형태가 해외에서 들어온 파벌주의와 결합되었다. 고유한 교파를 시작하려는 요구와 사역을 위한 외국 자본, 외국에서 공부한 국민에게 심겨진 파벌주의가 한데 모여 위험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 국가 지도자들이 이러한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도록 기도하자.

- ## 6 신학 교육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훈련기관 수가 2000년 90개에서 2009년 200개 이상으로 빠르게 증가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많은 기관이 소규모이며, 자원이나 자료가 거의 없고, 제대로 교육 받지 못한 강사들로 이루어져 있다. 여성이 전체 학생의 50%를 차지한다. 이전 세대에 존재하던 자유주의 신학의 위협은 상당히 약해졌지만 여전히 몇몇 주류 교단에 남아 있다. 특별히 다음을 위해 기도하자.

- 1) 더 중요한 기관. 미얀마 복음주의 신학대학원(Myanmar Evangelical Graduate School of Theology, MEGST)과 미얀마 신학 교육 협회(Association for Theological Education in Myanmar, ATEM)가 이에 해당한다. 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한 새로운 컨소시엄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졌지만 아직은 발전 단계에 있다.
- 2) 짧고 집중적인 훈련 과정과 선교 동원. 이런 훈련은 자비량 사역자와 평신도에게 효과적이다.
- 3) 균형 잡힌 성경적 진리, 복음 전도 훈련,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불교적 세계관과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선교를 준비해야 한다. 전(前) 불교 수도승이 개발한 한 방법론이 괄목할 성과를 보이고 있다.
- 4) 지도자 유지. 꽤 많은 사람이 영어를 배울 목적으로 신학대학에 다니며, 이것을 해외로 나가는 티켓으로 여긴다. 몇몇은 외국에서 공부하고 나서는 미얀마에서 사역하는 힘든 삶은 택하지 않는다. 미래 사역 지도자의 사역 준비를 돕고 미얀마에 머물게 할 MEGST 내 석사 과정 개설로 인해 하나님께 찬양드리자.

5) TEE 과정은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를 위해 지도자를 훈련시켜 배가시킬 중요한 도구다. 이 개념은 전통 교회와 불교 배경을 지닌 신자의 운동 모두에 효과가 있다.

7 불교는 라킨족, 산족, 몬족과 같은 미얀마 주요 종족 안에 매우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많은 정령 숭배 종족에게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버마의 불교는 불교 이전 정령 숭배와 주술적 신앙, 점성술과 미신을 포함하고 있다. 아이들은 대부분 사원에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불교적 사고의 영향이 만연하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는 불교적 사고방식과 영적 권위가 있는 승려들을 이해하고 배워야 한다. 그러나 긍정적인 신호가 보이고 있다. 예수님께 마음이 열린 사람들, 특히 70만 수도승 가운데 그런 사람이 늘고 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연구하고 기독교 방송을 듣는다. 보도에 따르면 수천 명이 은밀하게 기독교인이 되었고, 불교를 떠나는 것에 대해 문화적·사회적·영적 제약이 크지 않다면 더 많은 사람이 믿음을 가질 것이다. 수도승이 벌이는 정치적 시위에 대한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불교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감소했다.

8 복음 전도가 미미한 종족. 여전히 수백만의 미전도종족이 있다. 대담하면서도 섬세한 복음 전도와 함께 교회 개척이 필요하다. 불교 신자에게 적합한 틀로 복음을 설명하는 새로운 움직임이 있다. 이 움직임은 라킨족 사이에서 시작되어 버마족과 카렌족 불교 신자에게 퍼져 나갔다.

- 1) **바마(버마)족**은 견고한 불교 신자들이다(기독교인은 0.1%). 수년 동안 불신했기 때문에 부족 신자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가 쉽지 않으며, 정치적으로 우세한 버마족이 편견 없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다. 이처럼 견고한 불교 종족 안에 개종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자.
- 2) **산족**은 타이족과 근족이며 황금의 삼각지대에 거주한다. 기본적으로 불교 신자이지만, 군사정권과의 전쟁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다. 0.9%만이 기독교인이고, 성경책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다. 새로운 산어 성경 번역본이 2003년에 출간되었다.
- 3) **불교를 믿는 기타 소수 종족 안에는** 기독교인이 극소수다. 아라칸족/라킨족(0.1%), 팔라웅족(0.2%), 몬족(0.9%), 루족(0.2%), 양비족(0.5%)과 몇몇 소수 집단이 있다.
- 4) **수십 개의 정령 숭배 종족 가운데 상당수는** 사랑이 담긴 복음 전도에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들 모두에게 생명력 있는 교회 개척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자.
- 5) **중국인**은 100만 명이 넘지만, 기독교인은 2.5%뿐이다. 미얀마에서 오랫동안 상당한 영향력을 끼쳐왔는데, 최근 윈난 성 국경을 통해 중국인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반감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에 들어온 이들은 버마 출신 중국인보다 복음화율이 더 낮다. 만달레이에 사는 시민 3분의 1 이상이 중국인이다.
- 6) **아라칸 로힝야족**은 1,000년 전부터 아라칸에 정착한 아랍인, 무어족, 모굴족, 벵골족의 무슬림 후손이다. 그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무시당하고 천대 받고 있다. 시민권을 부여 받지 못하고 기본권마저 수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많은 사람이 이웃한 방글라데시로 도망가거나 다른 나라로 불법 이민했다. 그들에게는 복음이 거의 전해지지 않았다. 흩어져 있는 소수 신자를 위해 기도하자.
- 7) **9개 힌두 종족**은 오랫동안 소홀히 여겨져왔다. 1928년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졌지만, 아직도 기독교인은 약 1% 정도다.

9 수많은 난민과 피난민(IDPs)을 위해 기도하자. 주로 정치적인 것보다는 경제적인 이유로 태국에만 200만 명이 넘는 미얀마인이 있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서구권 국가에는 더 많은 사람이 있다. 국내, 주로 기독교 지역에서 또 다른 100만 명이 추방당했다. 미얀마와 디아스포라 안에 선교와 영적인 열매가 증가하고, 미얀마인 교회가 많이 세워졌다. 그러나 많은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아무 기반 없이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10 미얀마 교회의 선교 비전은 계속 성장하며 성숙하고 있다. 상당수의 미얀마인이 타문화권에서 사역하고 있다. 양곤에는 성경학교가 많이 있고 최소 1,000명의 학생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교육 과정의 핵심에 선교를 포함한다. 도시뿐만 아니라 시골 마을에서도 선교할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고, 진정한 사랑으로 깊은 인종 차별을 넘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토착 교회가 양질의 훈련을 통해 나라 전체를 복음화할 준비를 갖추도록 기도하자.

11 그들 스스로 기독 지원 사역을 이뤄내고 있다. 토착 교회가 성숙하고 국가 사정이 절박해진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다. 다음과 같은 기도가 필요하다.

- 1) 사이클론 나르기스의 여파는 비극적이다. 그러나 생존자에게 음식, 물, 의복, 피난처, 생활필수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정신적·심리적 필요를 더 깊이 채워줄 실제적 사역의 문을 열어주었다. 많은 기독교인의 반응뿐 아니라 불교 신자의 개방적 자세는 사이클론을 "축복의 태풍"으로 여기게끔 만들었다. 외국 기관의 지역적 운영은 금지되거나 엄중히 규제되기 때문에, 현지 사역과 국제 단체의 동역 관계가 중요해지고 있다.
- 2) **에이즈 희생자.** 미얀마는 가장 심각한 에이즈 위기 지역으로, 인구의 1.5% 정도가 감염되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들 대부분이 "기독교" 지역에 거주한다. 정부의 부적절한 예방책과 대규모 성매매(주로 원치 않게 인신매매된 시골 소녀들)가 결합하여 많은 사람의 삶이 망가졌다. ATEM, 티어펀드(Tearfund), 장로교는 HIV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이 병에 감염된 이들을 보살피는 몇 안 되는 핵심 단체다.
- 3) **마약 중독.** 정맥 주사 마약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황금의 삼각지대 근처에서 마약이 생산되고 있다. 이는 당연히 HIV/AIDS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얀마 청년 십자군(Myanmar Young Crusaders)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중독자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한다.
- 4) **위기에 처한 어린이.** 내전과 나르기스의 피해로 75만 명이 넘는 어린이가 위협에 처해 있다. 많은 수의 지역 교회와 선교단체에서 고아원을 운영하거나 거리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다. 주로 매우 작은 지역 규모 사역이다. 이러한 대중 사역에 재정이 공급되고 자유롭게 운영되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기도하자.

12 교회를 돕는 매체 자원.

- 1) **성경과 기독 문서는** 수입과 출판 규제로 공급량이 심각하게 부족하다. 도시에 기독 서점이 점점 많이 생기고 있지만(복음주의 문서 센터[Evangelical Literature Center], CLC 등), 필요를 채우기에는 한참 부족하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쓸모없는 기독 서적은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잘 번역되었으며 성경적으로 충실한 저술이 많아지도록 기도하자. 하나님이 버마인 저자를 일으켜 이러한 필요가 채워지도록 기도하자.
- 2) **성경 번역은** 핵심 과제다. 16개 언어로 신약성경이나 신구약 전체를 번역하는 팀이 있지만, 수십 개의 팀이 더 필요하다. 대부분은 미얀마인 번역가가 완성하는 것이 좋다. 복음주의적 토착민 번역가가 세워져서 기존 작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이러한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사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3) **기독교 라디오는** 35개 언어로 방송되고 있고, 유동성과 사생활 보호에 매우 효과적이다. 주요 라디오 방송국으로는 FEBC(바마어/버마어를 포함한 28개어, 일주일에 총 76시간)와 TWR(버마어, 카렌어, 일주일에 11시간)이 있다. 방송으로는 재림교 세계 라디오(Adventist World Radio), 아시아를 향한 복음(Gospel for Asia), 베리타스 아시아 라디오(Radi●Veritas Asia)가 있다. 몇몇 다른 방송은 주로 영어로 방송한다. 프로그램 제작과 장비 제공을 위해 기도하자.